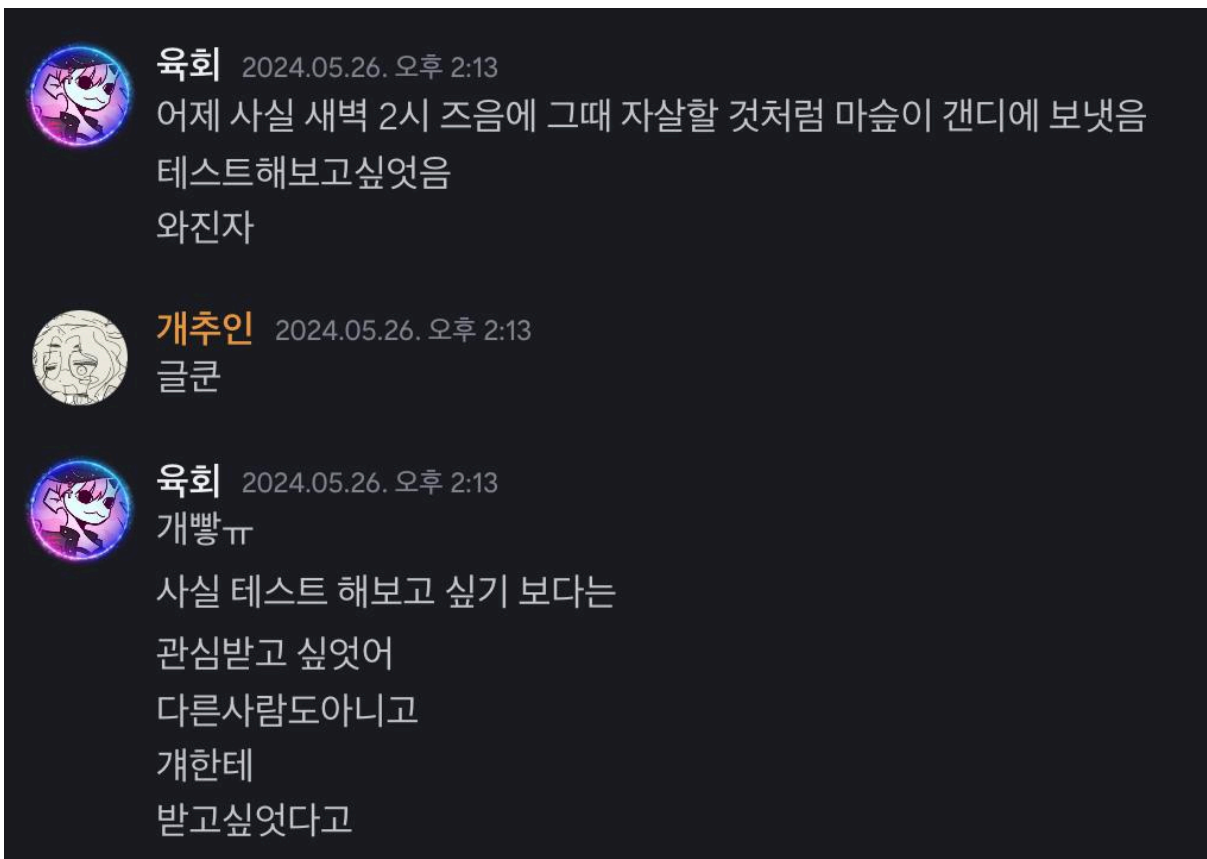


(편의상 태양님이라 칭하겠습니다) // 첫번째로 제가 태양님과 함께 할 시기에 가장 크게 문제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태양님은 마썸(@/ masbi_msb)님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귀는 것까진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태양님은 연애 중-후반에 들어서자 애정을 더욱 갈구하기 시작하더니 마썸님을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썸님은 연인이었던 태양님을 싫어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태양님의 도 넘은 망상 때문이었어요
태양님은... 마썸님께 무엇이 문제이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고 물어봤었지만 결과는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끝이었습니다

태양님은 오직 관심만을 위해 마썸님에게 난 자살을 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썸님은 이때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또 마썸님이 없는 방에서 마썸님을 욕하기도 했고요

이후 태양님과 마썸님은 헤어졌지만 얼마안가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태양님은 마썸님께 널 다시 사랑하는 것 같다며 고백을 해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다시 사귀고 난 후에도 처음 사귀었을 때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연애에서도 결국 헤어졌고 태양이는 계속 마썸님의 욕을 했습니다

연애 도중 마썸님은 태양님에게 만약 너와 실제로 만난다면 같이 맛있는 걸 먹고싶고 재밌는 것도 타고싶고 애정행각도 해주고 싶다, 하며 즐겁게 진실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양님은 마썸님의 말에 그거 빈말아니아? 되지도 않는 일 말하지 말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와 제 지인들은 완전히 태양,가전님과 갈라졌고 태양님은 마썸님에게 말을 걸 통로가 없어지자 마썸님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평소에 말 한 번 잘 건네지 않던 A님(아이디와 이름을 밝히고 싫어하지 않으심) 찾아가 A님의 자캐를 그려주고 꾸준히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 태양님은 이전에 A님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마그마를 했을 때, A님의 그림을 보고 너무 얇게 그리는 거 아니냐, 나뭇가지 같다며 A님의 그림을 비하하며 A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젠님 (@Yi_Jenyi) 은따/싸불

태양님은 그때 당시에 같은 방에 있으셨던 이젠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태양님은 남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젠님은 20대 초 성인 남성분이십니다)

이젠님은 이때 당시에 같은 방에 있으셨던 비코님(계정 X)을 짝사랑하며 비코님과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님은 간혹 장난식이었지만 선이 넘는 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태양님은 그런 이젠님에게 트위터 디엠으로 정신 좀 차리라며 여러 정신병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튀양173



튀양173

@Sunny173_

Broken colors / DoL / 홈스틱 | pfp. xato

팔로워 14명

목요일, 2월 22

정신병원 전화번호 모음 리스트



뭉갱

2013. 6. 25. 18:22

+ 이웃추가

정신병원 전화번호 모음 리스트

(신경정신, 노인성질환, 알콜중독 전문 천안 좋은우 리병원 : 041-551-3391)

(일산병원 정신과 : 031-900-0114)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031-639-3700)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가족사랑 서울 정신과 의원 : 02-2068-7486)

(송신경정신과의원 : 02-734-5648)

(신경정신과의원 : 02-517-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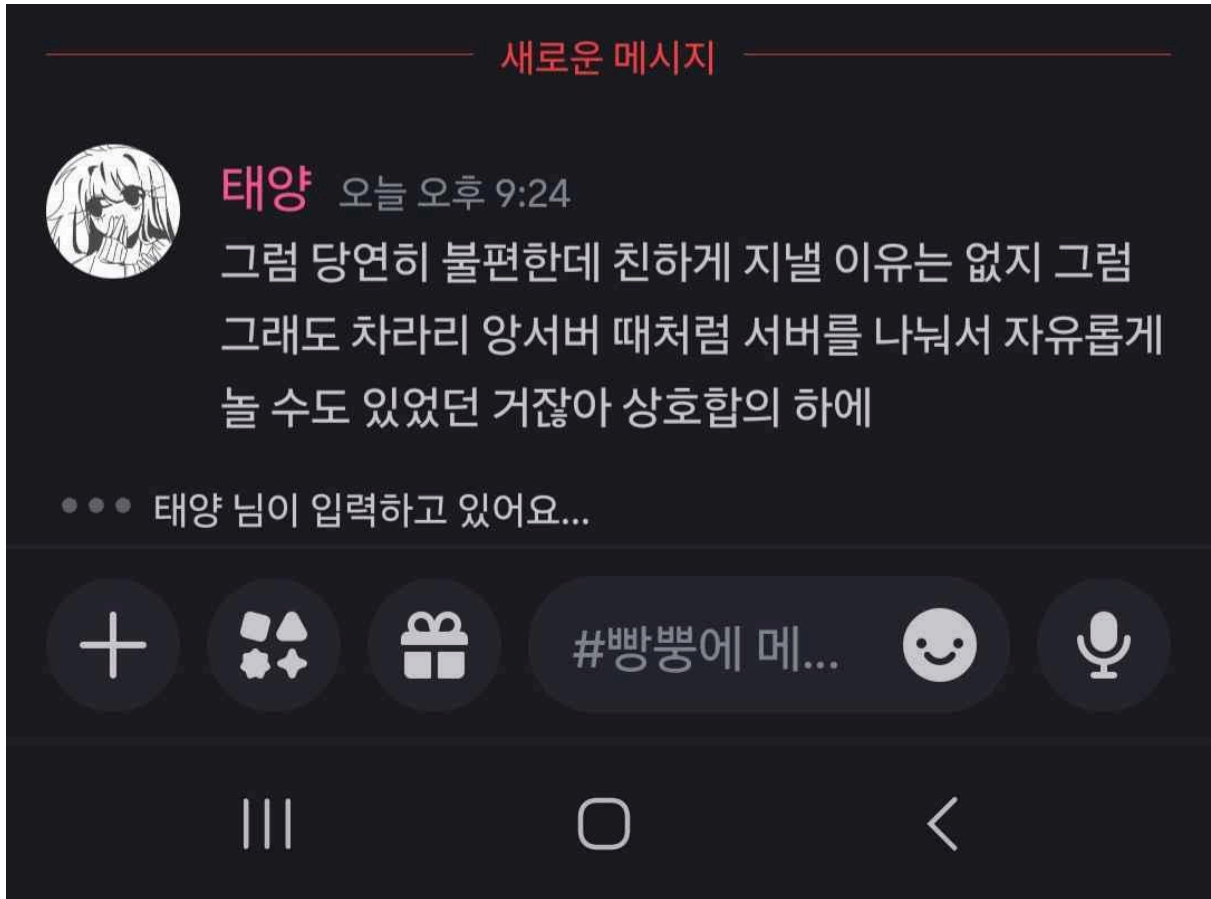
(동민신경정신과 : 02-353-2325)

(솔빛정신과의원 : 02-359-9418)

(대그 정신병원 : 052-620-2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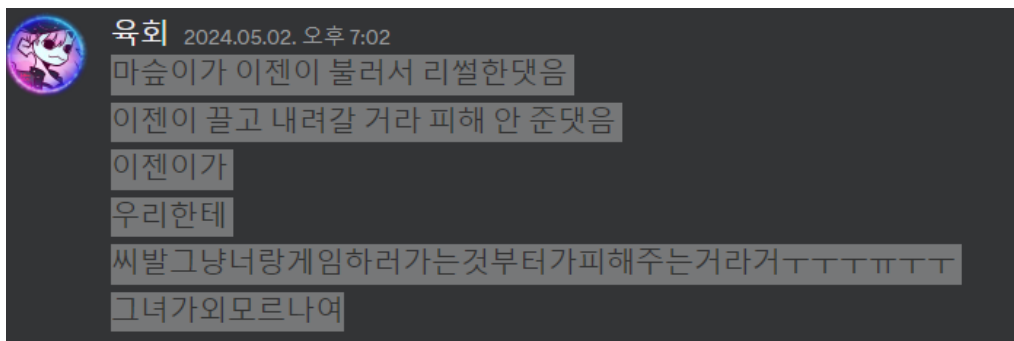
또 태양님은 가전님과 이젠님만 썩 빼둔 서버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서버를 만들 때, 저와 제 지인들은 이 서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동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완성된 서버에 초대를 받았습니

다. 태양님은 추후 이 일을 모두가 동의했다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모두가 다시 합쳐지고 난 후 (태양님과 마썸님이 사귀고 있을 시점, 태양님은 여전히 이젠님을 싫어함.) 함께 마그마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젠님은 태양님께 죄송한 마음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태양님과 마썸님의 오너캐를 정성스럽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양님은 그것을 보고 정말 혐오스러운 것을 본 듯 정색을 하며 그 그림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양님은 이젠님을 욕하며 만만한 상대로 보았습니다.





육회 2024.05.30. 오후 9:08

결국 또 캔두 이젠 피하기

난 여기 아니면 워든시티가 가장 편함

태양님은 위의 일들을 제외하고도 비코, 마리앙(@/lesbian_s3x__), 아잉(아이디가 나오길 원치 않으심) 저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비코님 관련)



육회 2024.05.15. 오전 11:35

비코형 씨발 진짜 올 때마다 지 할말만 쓱! 하고 남들 하는 말 어그레? 어 그렇게~ 그건 그렇고~ 아 근데~ 이지랄하면서 좇 무시하고 존나 지하고 싶은 말 십몇분 떠들거리다가 슬슬 할말 떨어져가면 자리 갈갱~ 하면서 꺼지는 것도 존나 개킹받고ㅠ 다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안돼서 짜증나고 좇 같고 울고싶고 하면서 나한테 개씹지랄한 것도 짜증나고 죽여버리고 싶었엉ㅠㅠㅠ 또 그때는 비코님이 뭐가 좋다고~~ 이제 살아갈 의지가 없다고 하니 존나 씨발 어떡행 비코형 죽나봐ㅠㅠ 하면서 쳐 질질짜고 애들이랑 어거지로 화해해서는 난생본 적도 없었는데 어찌다보니 기어들어와서는 어설픈게 친해지고 개같이 멀어진 이젠이랑 재회해서 억지로 다시 친해지고 또 좇 병되고 그러니까는 와서 또 다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듀ㅠㅠ 하는 꼬라지가 이제 더이상 걱정되지가 않네ㅠ 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도 당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남들한테 하소연 존나 하다 갈까ㅠ 위로는 고마웠어ㅠ 근데 씨발 좇같은 상태에서 위로 받으니 그냥 관심 꺾음 좋겠더랑.... 이미 가신 분한테 좇지랄해서 미안한데 돌아와서라도 알 건 알아야지ㅠ 비코도 사과 못 들어보고 얼렁뚱땅 넘어간 게 존나 많더라~ 진짜 좇나 좇같이도 고마웠당ㅠ (수정됨)



육회 2024.04.21. 오전 3:10

마슈이가 양인데ㄸ니 맘에 안 들

비코새끼가 염소라서

심지어 흑염소

|—냥

ㄸ비코형을 내보내고

마슈이 양 시키고 싶음



육희 2024.05.09. 오후 10:21

난 대체 비코 가는게 뭐가 그리 아쉬운지 모르겠음 (수정됨)

이제 비코가 존경스러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나

해박야 가끔씩 와서는 자기 장르 캐 사고 자랑하고 집 연설 10분하고 장르연설하고 무슨 학교 이벤트 행사 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마냥 잠시 등장하고는 졸리다며 사라지더니

모두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좇같아하고 보면 자살하고 싶다고 여기는 새끼들한테 지 잘못은 없는 양 다 속 빼놓고 하소연하는게

뭐가 그리 좋다고 이 난리를 쳐야하는지

위로도 별 뽕만 도음도 안되고 자기도 못한 것들이나 늘어놓고서는 위로랍시고하는게 대체 언제 있었든 부분이 존재했고 언제 위로가 됐고 언제 고마웠고 언제 어는 부분이 매력적이었는지

좇도 이해가안감

대체 무슨 정이 어떻게 남아있을수가있지?

감정의 원천지가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된 것 같아

존나 좇같은 새끼들의 영향력만 나에게 미치는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를 깨달음

씨발... 진짜 존나 이해가안된다 어떻게 저 새끼한테 정이 갈 수가 있지??

보면 볼수록 비호감이라 짱남

강들 다 차 단 때려야겠다 — L ·

씨발 ππ 비코를 어떻게 잊어 좇나 좇같은 새끼였는데

(마리앙 포함 및 다른 분들 관련)



육희 2024.05.15. 오전 11:48

마리앙더~ 내가 씨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 다 하더랑.... 파놉판

에서 개 좇같은 새끼들은 다 감싸 안고 튀고 개 좇같은 새끼들 내보

내겠다 난리치는 나는 육보이고 떠나간 [redacted] 님이 보기 좇나 싫으니

까 [redacted] 님 얘기 강조하지 말라고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씨발 그걸

몇번을 말했었는데 나올거면 왜? 가 나와야지 응 아니야는 왜하는

거야 π 너는 그때 거기에 있었잖아 그 판에 같이 들어가서 그 판에 |

—서 탈주하는 핑빠와 나의 좇같은 이야기 하소연을 듣고 보면서도

왜 그러는 거냐고 π 그것도 내가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뭐 하던지

말던지는 자유지~ 근데 씨발 나를 대상으로 하고 잃으면 그게 손절까

고 싶다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되냐 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랑 멀어

지는게 무섭다면서 왜자꾸 좇같아질 짓거리를 벌여 머 그 우리에게 나

는 포함 안되어 있는 거야? ㅋㅋㅋㅋㅋ 하기가 내가 마리앙한테 해준

게 머가 있더냐~ 지금껏 소외감 느끼는 일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π

좇같은 건 좇같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혹시 더 자세히

사과 받고 싶음 개인적으로 와라

존나 나머지 둘도 이 알딸딸한 것 같은 우울감이 떠나가기 전에 개

같이 지랄하려 했는데 내 선택권 따위는 없이 학교에서 점심을 나가

서 챙겨야 한다 하니까~ 언젠가 다시 좇같아지거나 듣고 싶다 하면

얘기할게~

가전은 숨기고 싶을 게 존나 많이 있을테니까 개인적으로 와.

오고 싶으면!

지/지

(그외)



육희 2024.05.15. 오전 11:12

와 진짜 존나 대가리 깨고 넘어가려 해도 넘어가지지가 않네 해줄말이없다고??네가당사자인데???당사자가나한테해줄수있는말이없어서미안하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존나 대놓고 말을해줘도당사자들이눈치를못까는건지개씹좆병하게병먹금하면서죽닥치고있는건지말이없넹ㅍㅍㅍㅍ

내가 뒷북가서 미안하다ㅍㅍ 존나 내가 잘못생각하는 건가 싶을정도로뻘뻘해서속아넘어갔거든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 나이들 처먹고서도 1+1이 2라는 걸 알려줘야 아는지 존나 신기하고 어지러워서 정신이 혼미해져

여기 말고 다른데에 공개적으로 말해봐야워하냐... 어차피다들관심도 없어서 해봐야 여기에 있는 두명이 전부데

이 존나 해가 중천에 떠갈 무렵에 지랄해서 미안하다~ 근데 개좆갈게도 느그들이 좆병한 일들이 머릿속을 장악하잖아 내가여기에서말도안하고넘어가면 또 소중한 몇 명 때문에 공개적으로 손절도 못하고 속으로만 개씹쌍련들ㅋㅋㅋㅋ언제나가뒤지냐하다가 내가먼저 즐라 답답해뒤질것같은데



육희 2024.05.15. 오전 11:22

너네도 알잖아ㅍㅍ 존나 무섭고 어지러워서 아가리 꼭 닫고 잇은 채로 꺽꺽 버텨가고 있어 봤자 해결되는 건 느그 공포감을 일시적으로 죽이는 것 밖에 없고 결과는 거짓된 우정인 거ㅍㅍ

근데

왜

조용히

묵혀가냐고ㅍㅍ

혹시 태클 걸까봐 말하는데 내가 말한 건 오늘 하는 말에 답을 안하는 게 아니야ㅋㅋ 어제부터 좆같다고 얘기했는데 답을 안한 거지

지가 당사자인 걸 몰랐다 하면 그건 그것대로 존나 웃기고ㅋㅋㅋㅋㅋㅋ

와 씨발 강 이렇게 된 김에 여기에서 누가 어떤 부분에서 개 좆같아서 꺽꺽 묶어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었는지 다 갈까?

태양님은 비코님과 마리양님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특히 비코님과 이젠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태양님은 아이님의 미숙한 점을 직접 아이님께 말씀 드리지도 않고 뒤에서 까기만을 했습니다.

아이님 전에 가전, 마리양, 그 외 두 명과 함께 있을 때 그 외 두 명 중 한 명이 가고, 마리양이 화장실 갈 때 "마리양 없으면 재미 없는데..." 라면서 자기 할 거 했던 얘기로 시작해서, 그 외에 뽕뽕에 들어온 이후로 "놀고 싶은데 모르는 얼굴 뿐이라서 못 놀겠네" 라던지,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하는 행동과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대화하지 않아 그쪽을 소외 시킨다던지, 나갈 때조차 자기가 그런 그림 자랑하면서 "즐거웠어요" 한마디 남기고 나가는 등의 행동이 여럿 있어서 그다지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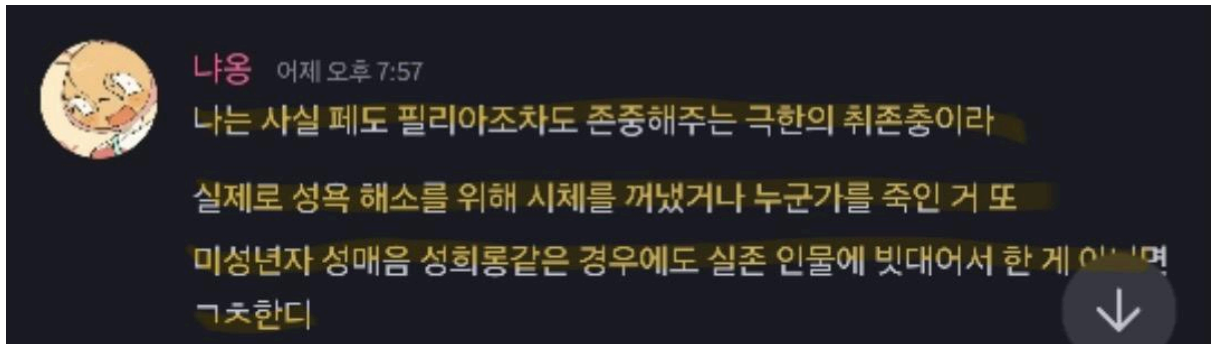
의도한 바는 아니라지만, 사실 난 고의와 실수의 관계 상관 없이 그 정도의 지능을 지녔다는 것조차 싫어. 지금 노력한다고 해도 언젠가 몇 번씩은 다시 그런 일을 벌일 거고, 그런 애같은 사람이라 내 친구들이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조차 역겨워서 구역질 나와.

또한 캔두님(@/ mrcando0070)과 이젠님을 앞에선 용서한다고 해놓고선 뒤에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등...

다른 분들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태양님은 리버스, 여공남수를 싫어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역겨워하며 취쫓을 하기도... 뭐 사실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님은 전에 자신은 페도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등의 문제되는 요소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혹여 태양님과 인연을 이어가실 분들이 있으시진 않을까 하며 태양님이 저와 제 지인들에게 피해를 줬던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